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22호

체육훈장 수여

손흥민, 체육훈장 청룡장 받아..윤대통령이 직접 수여

조태흠 KBS NEWS 기자

손흥민은 '청룡장' 박인비는 '맹호장'...체육훈장 서훈의 기준은?

이창명 머니투데이 기자

장애인 체육활동

“장애인 체육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약 1조4천억원”

김경윤 연합뉴스 기자

제주도 테니스 학생 선수단 실격

“체육회, 협회 탓에 제주 테니스 학생 선수단 실격패”

고동명 news1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남자 회원만 받는 골프장에 “성차별 개선” 권고

유주희 서울경제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2년 6월 2일(목)

손흥민, 체육훈장 청룡장 받아... 윤 대통령이 직접 수여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이 수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한국과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평가전이 열리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직접 청룡장을 수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받은 청룡장은 체육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으로, 마라토너 故 손기정 선수와 산악인 엄홍길, 피겨 김연아 선수 등이 받거나 추서됐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을 차지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청룡장 수여를 의결했습니다.

손흥민은 '청룡장' 박인비는 '맹호장' 체육훈장 서훈의 기준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2021-2022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 지난 2일 축구 선수로는 처음으로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다. 청룡장은 운동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 중 하나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상훈법상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며 상금이나 혜택은 없다. 훈장을 받기 위해선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를 거친 뒤 행안부 장관이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가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손흥민에 대한 청룡장 수여를 의결했다.

상훈법에 명시된 훈장의 종류는 새마을대훈장 등 12가지이며, 이중 이번에 손흥민이 받은 청룡장은 체육훈장으로 분류된다.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체육훈장은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에 따라 △1등급 청룡장 △2등급 맹호장 △3등급 거상장 △4등급 백마장 △5등급 기린장으로 구분한다. 청룡장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지금까지 청룡장을 받은 선수들은 국제무대에서 세운 공적이 뚜렷하다. 골프의 박세리와 최경주,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마라톤의 황영조와 이봉주, 역도의 장미란, 태권도의 이대훈 등이 있다. 청룡장은 서훈점수 1500점을 달성해야 하는데 올림픽 금메달이 800점, 은메달이 540점, 동메달이 320점이므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어야 가능한 점수이다. 김수녕·기보배·박성현 등 양궁과 김기훈·전이경·최민경 등 쇼트트랙 같은 올림픽 효자종목에 청룡장을 받은 선수들이 유난히 많은 이유다.

다만 특례 등에 따라 우리나라 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 올림픽 메달이 없거나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 올림픽 종목 선수가 아니어도 체육분야에 공로가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다. 산악인 엄홍길 등이 대표 사례다.

청룡장 다음으로 등급이 높은 맹호장(700점)이 있다. 맹호장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대표팀 선수들에게 수여됐다. 유명인으로는 선동열 전 야구 대표팀 감독과 골프여제 박인비가 있다. 거상장(400점)부터는 최순호 등 선수 출신 뿐만 아니라 지도자나 교수, 행정가, 대회 홍보 등에 공을 올린 연예인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수여하고 있다.

다만 공적을 올려 훈장을 받았더라도 범죄 여부 등에 따라 나중에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도 환수된다. 상훈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이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확정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약 1조 4천억원”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체육 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을 조성하면 약 1조 4천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시행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의 의료비 절감 및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체육활동은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주요 11개 질병에 관한 예방효과가 발생하고 ▲남자 장애인 2.4일(비장애인 0.84일), 여자 장애인 2.19일(비장애인 0.85일)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0일 "체육활동으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는 장애인 1명당 약 21만5천300원"이라며 "생산성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종합하면 총 사회경제적 효과는 1조 4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장애인 35만2천280명, 비장애인 141만2천818명 등 총 176만5천98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및 진료 이용 자료 결과를 토대로 했다.

“체육회, 협회 탓에 제주 테니스 학생 선수단 실격패”

제주도체육회와 제주테니스협회의 안일한 운영으로 테니스 학생선수단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실격패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나왔다.

제주테니스 남자 16세 이하 선수단 학부모들은 31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소년체전을 얼마 안 남겨두고 학생 선수단을 인솔할 지도자 A씨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는 테니스협회의 연락이 왔다.


당시 A씨는 제주테니스협회 내부에서 발생한 비리 및 아동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으나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게 학부모들의 입장이었다.

이후 학생들은 지도자 배정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와 함께 지난 28일 경북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했으나 상대팀이 문제를 제기, 실격 처분을 받게 됐다.

학부모들은 "도 체육회와 테니스협회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감독, 코치 임명을 거부해 학생들이 실격패를 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들은 비통함과 책임감,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런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체육회는 "이번 실격패와 관련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감찰단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를 엄중문책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자 회원만 받는 골프장에 “성차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정회원만 가입할 수 있는 골프장에 성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1980~90년대에 개장한 골프클럽 두 곳은 만 35세 이상의 남자만 정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여성의 경우 평일회원·가족회원으로 입회하거나 비회원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해야 한다. 인권위는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며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골프클럽 측은 “골프가 남성 중심 스포츠로 인식되던 1980~90년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회원자격을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골프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골프 인구 636명 가운데 여성은 289만명으로 45.4%에 달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상업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주간 스포츠 소식

대한체육회, 7월까지 부패·공익신고 실효성 강화 캠페인

<https://www.news1.kr/articles/?4696456>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 체육시설 선정사업

<https://star.mt.co.kr/stview.php?no=2022060516014189754>

전북장애인체육회 국가대표 선수 포상금 전달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4420>

당진종합체육관·반다비국민체육센터, 설계 당선작 선정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892>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발표

<https://www.news1.kr/articles/?4700620>

당구협회 정기총회 개최...대한생활체육회 종목단체 가입 승인

<https://mkbn.mk.co.kr/news/view.php?year=2022&no=493390>

300피트-학교체육진흥원, 스마트 체육교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손잡았다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206050100028280001754&servicedate=20220604>

예산군, 주민 삶의 질 높이는 체육시설 조성 '착착'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31582>

“체육계는 디지털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동참해야...” e스포츠 정식 종목화 제안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6050648003&sec_id=530101&pt=nv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